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 경제는 어떻게 연착륙으로 가는가
- CNN Business: 미 중산층 “재정적 번영 가능하다” 답변
- WSJ Real Time Economics: 인플레이와 금리 인상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대차대조표 지원위해 ‘핫’ 예금에 의존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미 주식시장, 2019년과 같은 랠리”

[부동산]

- Bloomberg: 많은 미 주택 소유자들 이사 원하지만 갈 데가 없다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경제 회복세 약화, 정부 지원 나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해운사 업계 “수요 보다 선박 선적 능력이 더 늘어난다”
- Bloomberg: 미국 항공 여행 수요 감소한다
- WSJ: Walmart, Flipkart 지분 늘리기 위해 14억 불 투자
- Bloomberg: Amazon, 당일 배송 시설 두 배로 늘린다
- WSJ: 트럭 운송 대기업 Yellow, 파산 신청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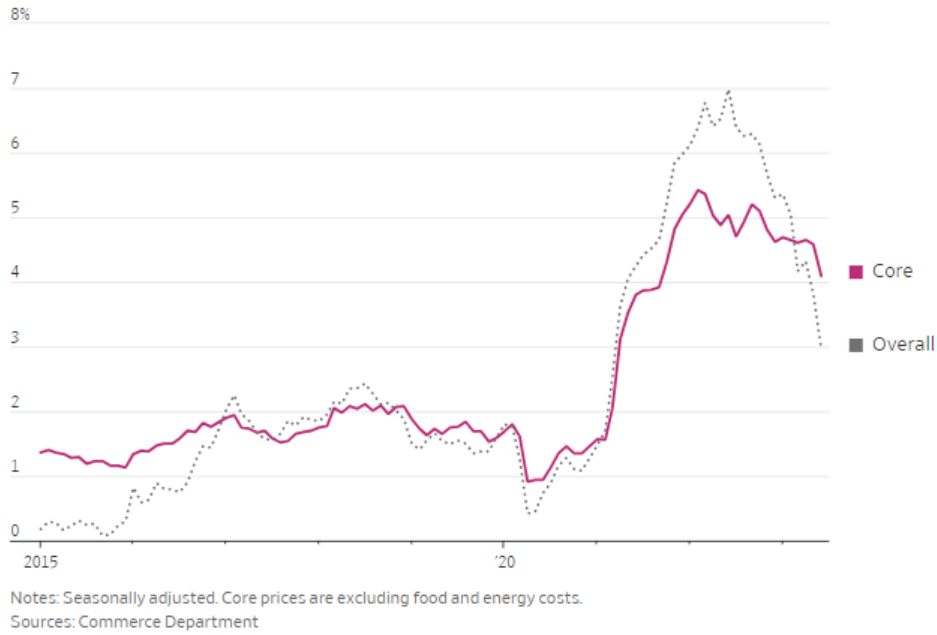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How the U.S. Economy Is Sticking the Soft Landing

미국 경제는 어떻게 연착륙으로 가는가

- 경제 신호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은 기업들의 고용 추세이다.
- 우선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 화물 철도 운송량이 줄고, 건설회사들의 장비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가격도 인하되는 부문이 적지 않다.
- 그러나 기업들은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예컨대 Apple은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피하고 있다.
- 또한 견조한 소비자 지출에 인플레이도 둔화하였다. 임금상승률도 여전히 높지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hange in PCE prices, from a year earlier



WSJ 기사

CNN Business: Middle-income Americans think prosperity is within reach 미 중산층 “재정적 번영 가능하다” 답변

- 스페인 Santander 미국 법인이 최근 2천2백50명의 중간 소득 고객(가구 소득이 \$47,000~\$142,000 사이로 정의됨)을 대상으로 한 분기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80%의 가구가 최근 은행 위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최근 상황에서 그들이 재무 행태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5%만이 혼란으로 인해 은행 거래처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 또한 응답자의 68%가 재정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에 올라섰으며 79%는 향후 10년 내에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은행은 번영의 뜻한 재정적으로 번창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큰 희생 없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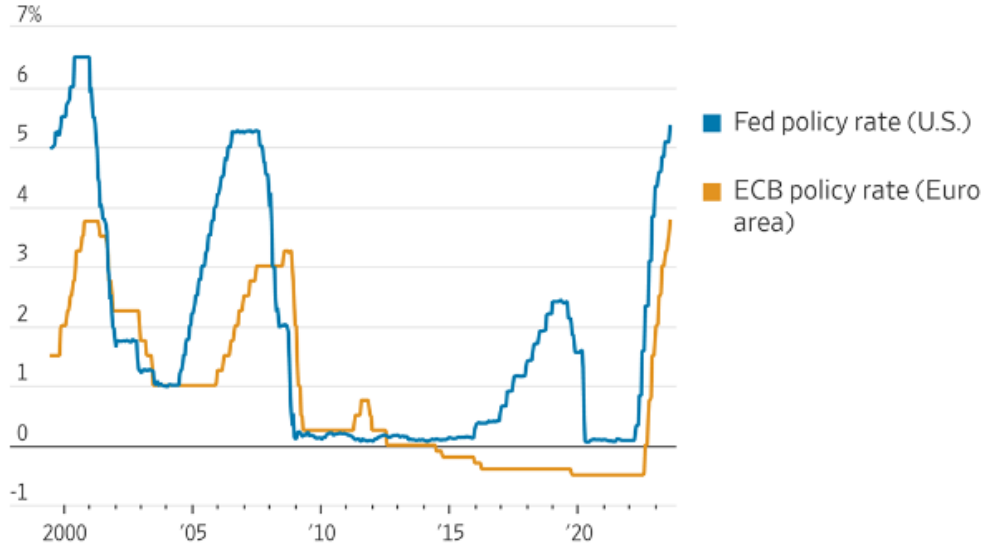
WSJ Real Time Economics: 인플레이와 금리 인상

[인플레이와 금리 인상]

-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지난주에 기준 금리를 22년만에 최고치로 올렸고, 향후 추가 금리 여지를 남겨두었다.
- 지금까지의 인플레이 진행에 높은 금리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중앙은행들은 어려운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금리를 낮출수 있다는 점이다.

- 한쪽 진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인플레 하락은 금리 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반대진영은 금리 인상으로 상품, 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낮추어 공급망의 긴장을 완화하고 가격 압력이 줄었다고 말한다.

Benchmark short-term interest rates



Sources: Federal Reserve, European Central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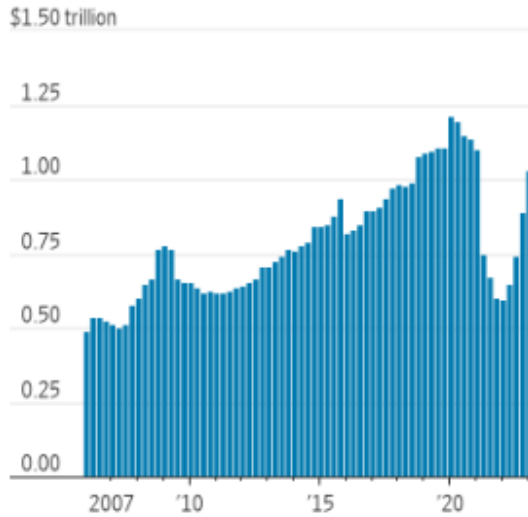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Banks Lean On ‘Hot’ Deposits to Shore Up Balance Sheets

은행들, 대차대조표 지원위해 ‘핫’ 예금에 의존

- 2분기에 중소형 은행들은 올해 초에 겪었던 예금 이탈을 대부분 안정화시켰거나 심지어 역전시켰다. 이를 위해 많은 은행이 제3자 중개업체를 통해 유입된 예금에 의존해야 했다.
- 중개 예금(Brokered deposits)은 은행이 급한 상황에서 대차 대조표를 지원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 그러나 중개 예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훨씬 더 비싸다. 이자율이 5% 이상일 수 있어 수익률에 압박을 줄 수 있다.
- 많은 작은 은행들이 1분기와 1년 전에 비해 중개 예금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는데, 이는 높은 금리로 인해 고객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중개 예금 비용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해 순이자 수입을 얻었다.

Total brokered deposits across banks



Note: Changes to FDIC rules in 2021 resulted in fewer deposits that would have previously been considered 'brokered' being reported as such.
 Sourc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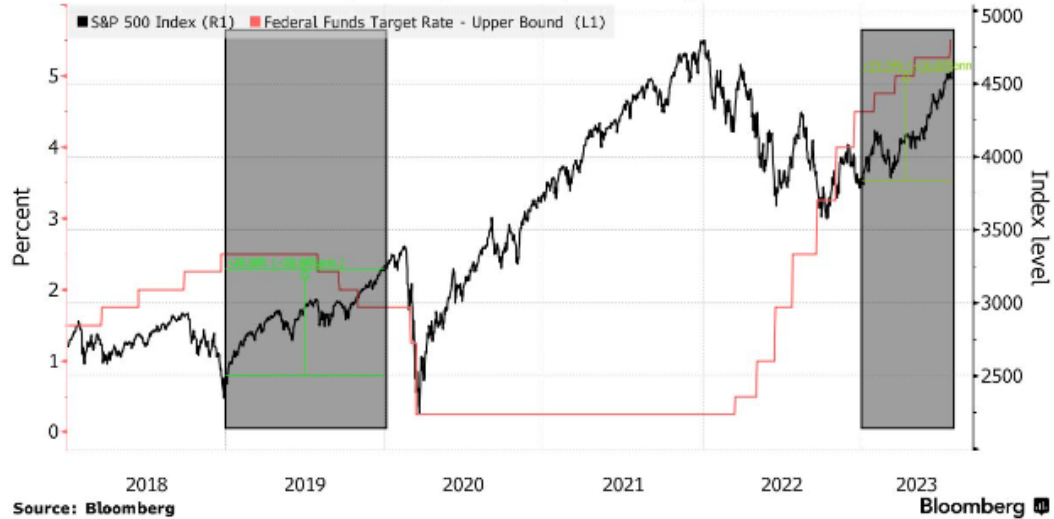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Strategists Say US Stocks Are in a 2019-Like Rally

모건 스탠리, “미 주식시장, 2019년과 같은 랠리”

- 작년 증시 폭락을 예견한 월스트리트 전략가인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은 그러나 오늘 월요일에 자신의 어조를 바꾸어 이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주가가 급등한 이후 발언이다.
- 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 증시는 지난 10년간 S&P500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29%의 수익을 안겨주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2019년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 S&P 500 지수는 올해 20% 상승하여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수익률과 거의 동일하다.

Morgan Stanley Says US Equities Stage 2019-Like Rally
Federal Reserve was already cutting in 2019, but hiking in 2023



Bloomberg 기사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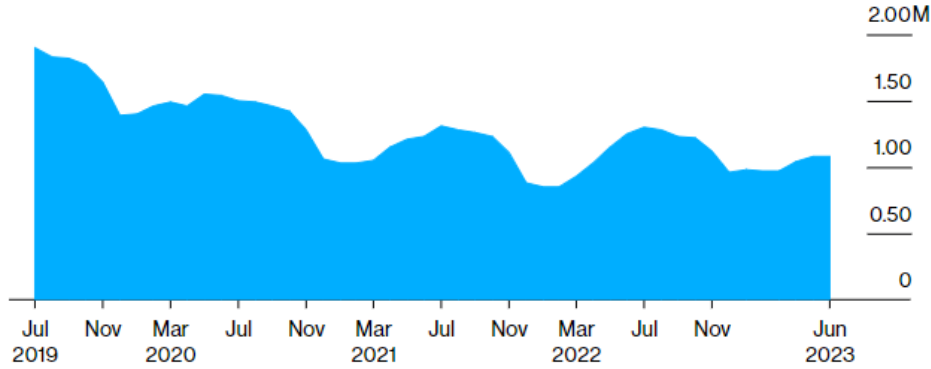
Bloomberg: Lots of US Homeowners Want to Move. They Just Have Nowhere to Go
많은 미 주택 소유자들 이사 원하지만 갈 데가 없다

- 현재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을 발견하기 더 힘들어졌다.
- 높은 주택가, 매물 부족, 수년전에 비해 갑절 이상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소유 미국인들의 거주지 변경을 가로막고 있다.
- 특히 이들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는 현재 보다 무척 낮기 때문에 이들의 새 주택 구매 모기지율인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를 보유한 미국 기존 주택 소유자 10명중에 9명 이상의 이자율이 6% 미만이라는 것.
- 더우기 부동산 가치는 치솟고 있고, 모기지 즉 대출 비용은 상승했으며 기존 주택 재고가 팬데믹 전에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 이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US Existing-Home Inventory Slides

The supply of listings is about half of what it was four years ago

■ Previously Owned US Homes Listed for Sale



Sourc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Bloomberg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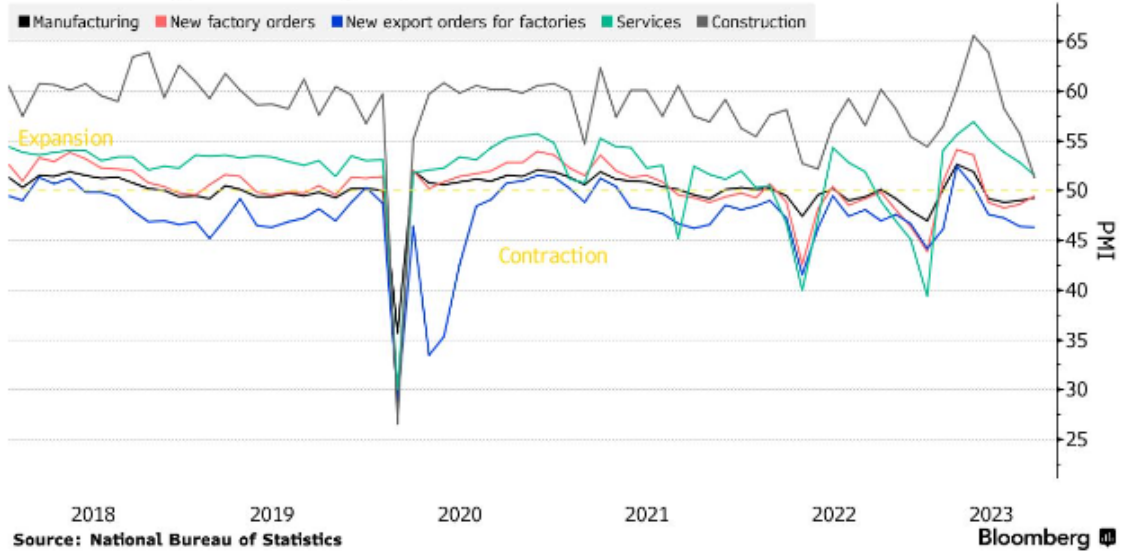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 Economic Recovery Weakens, Spurring Measures From Beijing

중국 경제 회복세 약화, 정부 지원 나선다

- 7월 중국 경제 활동 회복세가 약화 되었지만, 정부에서 소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3으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 및 건설 부문 활동을 측정하는 비제조업 지수는 51.5로 완화 되었다. 이는 6월 52.8에서 하락한 것.
- “수요 약세 문제가 여전히 심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태”라고 중국 물류 애널리스트 Zhang Liqun이 말했다.
- 중국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곧에 발표될 예정이다.

China's Economic Activity Loses Steam Manufacturing contracts again, services sector wane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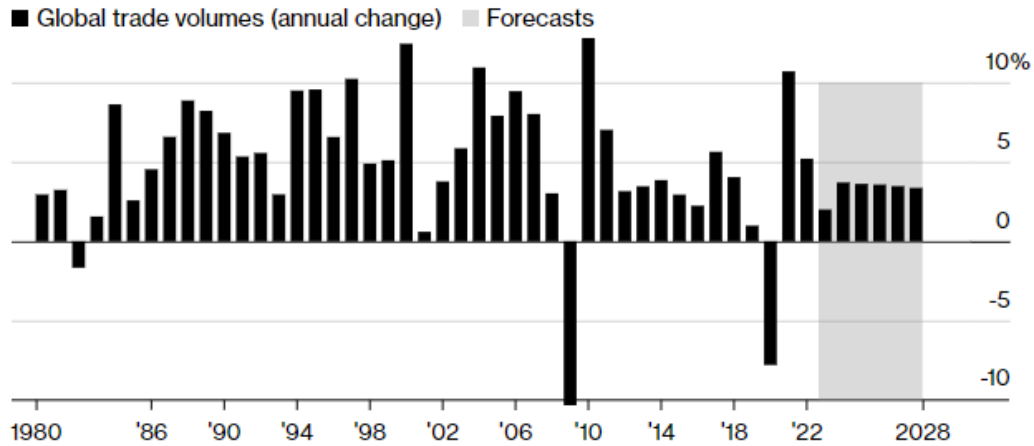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Shipping Companies Are On a Spending Spree 해운사 업계 “수요 보다 선박 선적 능력이 더 늘어난다”

- 해운사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 선적 능력이 이 무역량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컨테이너 선박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무역량은 2% 증가에 그쳐, 예상치인 5.2%보다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890척. 이는 전 세계 28%에 해당한다.
- 올해 인도되는 선박만 175만 TEU이다. 내년에는 182만 TEU, 2025년에는 10년 전 대비 55% 증가한 3천 5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Sees Deceleration in Global Trade Volumes

Growth rates for export and import volumes set to slow, fund says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Note: Data are for both goods and service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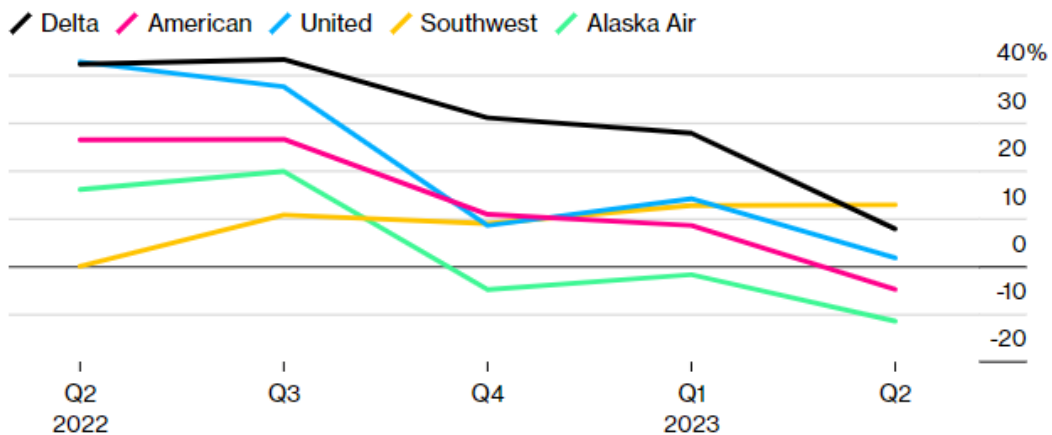
Bloomberg: Has America’s Air Travel Boom Peaked?

미국 항공 여행 수요 감소한다

- 미국의 항공 여행 붐이 사라지는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주요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항공권은 2분기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
- 하지만 이 데이터가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약 사이트와 타 플랫폼에서 구매한 것은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 미국인들은 팬데믹 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 항공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을 택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항공 여행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rlines See Weakening Growth in Value of Booked Flights

Some carriers experiencing declines in air traffic liability



Source: Company filings
 Note: Airlines record money received for a flight as air traffic liability. Flight payments are recorded as revenue once the flight is made.

Bloomberg 기사

WSJ: Walmart Pays \$1.4 Billion to Boost Flipkart Stake Walmart, Flipkart 지분 늘리기 위해 14억 불 투자

- 최근 월마트는 Tiger Global이 소유한 플립카트의 지분을 매입했다. 금액은 총 14억 불.
- 이번 투자로 월마트는 글로벌 디지털 소비자 시장에 더 많이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 플립카트는 인도에서 가장 큰 e-commerce 기업 중 하나이다. 지난 달 기준 총 4억 5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고, 8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1억 5천만 개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월마트는 2018년에 플립카트 지분 77%를 인수한 바 있다. 이는 총 160억 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였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Doubling Same-Day Delivery Facilities in Push for Speed Amazon, 당일 배송 시설 두 배로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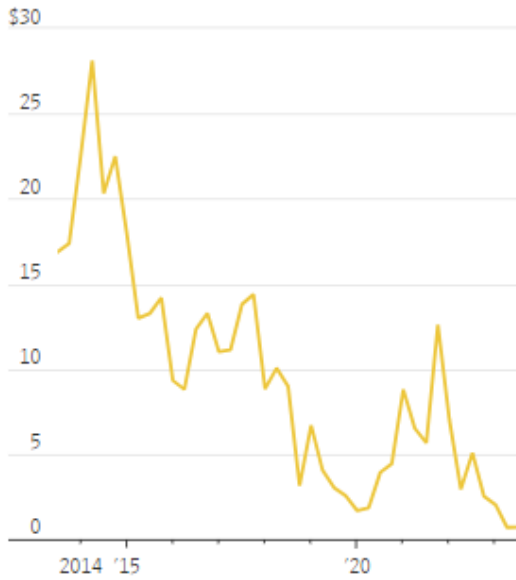
- 아마존은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월요일에 밝혔다.
- 빠른 배송은 여전히 아마존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 분기 동안 60개 대도시에서 '프라임 가입자'의 주문 절반 이상이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도착했다.
- 아마존은 올해까지 미국 내 프라임 회원에게 당일 배송으로 18억 개 이상의 제품을 배송 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WSJ: Trucking Giant Yellow Shuts Down Operations 트럭 운송 대기업 Yellow, 파산 신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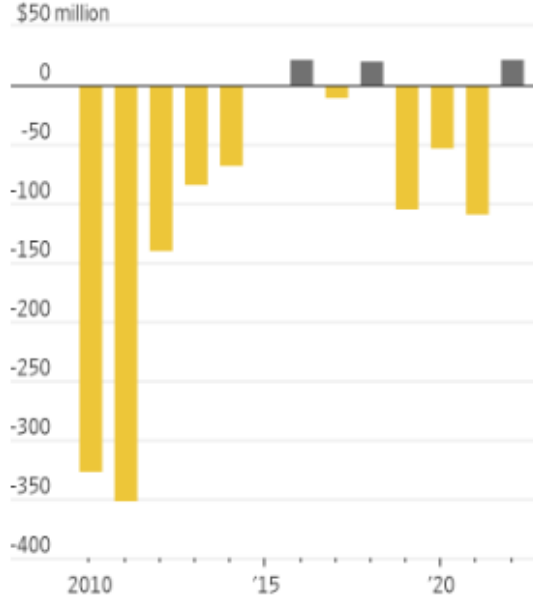
- 미국에서 가장 큰 트럭 운송 업체 중 하나인 Yellow가 일요일에 파산 신청을 했다.
-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월마트, 홈디포 및 기타 여러 소규모 기업을 위해 1만 2천 대 이상의 트럭을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 했었다.
- 파산 신청이 승인 되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엘로우는 저번주 금요일 고객 신규 배송을 중단하고, 비노조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

Yellow's monthly share price



Source: FactSet

Yellow's annual net profit/loss



Source: S&P Capital IQ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고금리 시대 도래에 미 개인투자자, '현금 굴리기'로 고수익

국채·MMF·CD에 돈 몰려...앞서 고정 저금리로 빌린 모기지서도 이익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보험분석가 에릭 리드(25)는 최근 작은 지역 은행에 예치된 자신의 자금 중 4분의 1 이상을 다른 투자처로 옮겼다.

그는 수익률 5.25%의 단기 국채, 5% 수익을 보장한 머니마켓펀드(MMF), 4.15% 이자율의 고수익 예금계좌에 이 자금을 물었다.

리드는 2020년에는 이자율 2.85%의 30년 만기 자금을 빌려 집을 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